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장난감의 주변도 살펴보자

“아 이들 장난감을 만들어서 몇 푼이나 벌겠나?” “장난감 고안도 발명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지!”

간혹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때면 필자는 영국의 히트 상품인 ‘물 마시는 새’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은 그야말로 황폐 그 자체였다. 독일의 무차별 공격으로 많은 인명이 고통을 당했고, 여러 공공시설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비록 영국이 승전국이라고는 하나 당장 입고 먹을 것이 없어 미국의 원조로 근근히 살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태이니 수출이 될 리도 없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도산 직전에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기업만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세계적인

완구 회사가 될 수 있었다. 이 기업이 바로 앞서 말한 ‘물 마시는 새’를 탄생시킨 주인공인 것이다.

‘물 마시는 새’는 태엽이나 건전지가 필요 없는 장난감이다. 그저 한 잔의 물만 주면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인다. 마치 살아 있는 새처럼 계속 목을 움직이며 물을 먹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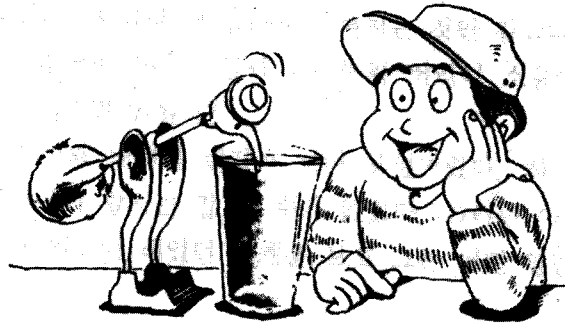
“어머나 신기해라! 건전지나 태엽도 없이 어떻게 움직일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 하며 이 장난감을 사갔다. 얼마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신기한 새를 선택했다. 이 작은 상품이

영국에 벌어들인 돈만 해도 수

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영국의 경제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 새는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사실 이 완구의 원리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새의 몸뚱이는 양쪽이 둥근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머리쪽의 유리관에는 에틸의 증기가, 꼬리쪽에는 에틸이 채워져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물에 젖기 쉬운 것으로 싸여있다. 이 머리가 물에 젖고 마름에 따라 에틸에 입력차이가 생겨 새가 끊임없이 목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사랑은 발명을 낳는다

‘진 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다. 노래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쏟는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릴까 걱정하고, 비가 오면 비에 젖을까 근심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하고 관찰하는 탓일까?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자녀를 위한 발명가가 되기도 한다.

로렌조 오일을 만들어낸 로렌조 부부가 그러했고, 실내화를 만든 마쉴리도 그러했다.

비단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뿐이 아니다. 연인끼리의 애정이나 넓게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이 발명과 아이디어를 내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발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부를 거머쥐기도 했다.

일본의 7씨 부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이다.

“아기의 머리뼈는 몹시 약하다. 한 쪽 으르만 아이를 눕히니 머리가 이리 빠들어지지.”

7씨 부부는 어머니의 질책에 몹시 놀랐다. 과연 갓 태어난 딸 아이의 머리는 약간 납작하게 눌러있었다. 부부는 몹시 당황해하며 여러가지로 수를 써 보았지만 한번 빼놓아진 머리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하게 나빠지는 것만 같았다.

“자세를 바꾸어 주어도 금새 돌아누워 버리니 소용이 없군... 베개를 바꾸어주면 안될까?”

7씨는 아이와 베개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떤 베개로 바꾸어야 할지는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베었던 베개를 보고 그는 어떤 영감을 떠올리게 됐다.

“사람의 머리는 곡선인데, 베개는 평면이군... 베개도 머리처럼 곡선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도너스형 유아용 베개’이다. 그는 이것으로 2년 안에 오백만엔이라는 거금을 벌었다. (주) 발독9909

